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59, No.10 (December 2009) pp.10-21

Rococo 직물에 나타난 플로럴 패턴의 조형성

이 선 화
동주대학 미용계열 교수

A Study on the Figuration of Floral Pattern of Rococo Textiles

Sun-Hwa Lee
Professor, Dept. Dongju College University, Busan Korea
(투고일: 2009. 6. 24, 심사(수정)일: 2009. 11. 9, 게재확정일: 2009. 11. 18)

ABSTRACT

The shape of floral pattern in the period of Rococo are a pots, a flower and ribbon style, a flower and a stripe style, a lace style and a scene style etc, and also in that time an apperance of softness of curved line, delicacy and smoth line, irregular and unrestraint line, motive of tiny and extra ordinarily, little bunch of flowers, and stripe style was a feature.

The style of presentation were a presentation of fixed style such effect as lace, and a presentation of realistically style emphasized a massiveness and a cubic effect, and also used a natural color, and the presentation of abstract expressed like imagined anything and fancied.

Weaving expressed delicate, brilliant, fantastic, and an atmosphere with elegant. embroidery was expressed in creation with emphasized in reality.

Printing was fantastic with exotic in development of chintz due to effection of orient.

The based on a salon civilization, the refind beauty of taste of royalty gave a refinded feeling with over affectionate in preference with a softness of curved line, and a motive of tiny and extra ordinarily. The classical beauty of elegant was realistic in being concentrated on building up blance and homony. The natural beauty of romantic was in being devoted the theme with soft and fantastic.

Key words: Rooco style(로코코 스타일), floral patter(식물패턴), curved line(곡선), decorative(장식적), nobility's taste(고상한 취미)

이 논문은 동주대학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Sun-Hwa Lee, e-mail: vouge2d@hanmail.net

Ⅰ. 서론

현대 패션은 고도로 발달된 산업과 과학 기술에 따라 신소재를 개발하고 새로운 시기에 호응을 받는 직물을 생산하고 있다. 신소재 개발에 대한 관심은 패션 디자인의 어떠한 분야보다도 주목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텍스타일 디자인은 신소재의 개발이라는 측면과 패턴의 미적 가치의 측면에서 상품의 품질에 부가가치를 더해 주고 있다. 특히 패턴은 다른 디자인 요소에 비해 시각적 효과가 크고, 예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발전해 왔으므로 패턴에 관한 디자인적인 관점에서의 고찰과 아울러 미적 표현 형식도 연구해야 할 분야이다.

현대 텍스타일 산업계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플로럴 패턴은 소비자의 기호를 만족 시켜주며 애용되고 있고, 오늘날 텍스타일 디자인의 70%~80%를 차지한다[1)2)]. 로코코시기는 '꽃의 세기', '꽃 패턴의 제국시기'[3)]라고 불리 울 만큼 모든 예술품과 공예에 플로럴 패턴이 사용되어 꽃 패턴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당시의 직물은 화가들이 예술 활동의 일면으로 직접 텍스타일 디자인에 참여하였으므로 예술적인 수준이 높았고[4)] 이들 고전적인 패턴은 오늘날 디자인적인 면이나 미적 가치를 크게 인정받아 텍스타일 디자인계에서 활용도가 높고, 현대 패턴 디자인으로 애용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계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플로럴 패턴에 대한 특징을 밝히거나, 조형적 특성을 파악하고 내재된 조형미를 도출하는 등의 연구를 필요로 한다.

한편 본 연구의 주제인 플로럴 패턴에 대해서 연구해왔는데 바로크 시기의 플로럴 패턴을 대상으로 하여 꽃의 주제와 시문방법을 중심으로 하여 조형적 특성을 고찰하였고[5)], 바로크 시기의 플로럴 패턴을 유형화하고 그 특징을 밝히며 조형미를 도출한 바 있다[6)].

본 연구에서 로코코시기 의상과 실내장식에 표현된 텍스타일 디자인 중 플로럴 패턴의 디자인을 분석하여 오늘날의 텍스타일 산업계에 예술적 분위기를 잃지 않으면서도 고전적 패턴이 현대의 감각에 어우러져 향후 디자인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시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은 로코코시기의 시대 문화적 배경과 예술양식을 바탕으로 직물의 특성, 플로럴 패턴의 형성배경을 살펴보고 직물에 나타난 플로럴 패턴의 조형특성을 파악한 다음, 그 안에 내재된 조형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이태리, 프랑스, 영국 직물의 플로럴 패턴 502점을 직물 도록 및 플로럴 패턴이 수록된 국내외에서 발표된 문헌을 활용하여 수집하여 고찰하였다. 연구 자료는 リヨン 織物美術館 第Ⅰ・Ⅲ卷(1976), Textile In Art Institute Of Chicago (1986), 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1986), The Illustrated History of Textiles(1991), VELVET (1993), VELOUR(1995). Silk(1996), The Textile Museum Lyon(1998), Textiles 5000 years(1993), World Textiles(1999)등이다.

Ⅱ. 로코코시기의 예술양식과 직물

1. 사회배경 및 예술양식

로코코는 프랑스 말에 어원을 두고 있는데 자갈을 의미하는 로카이유(Rocaille)와 조개껍질을 의미하는 코키유(coquille)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다. 16세기경 이태리를 중심으로 장식미술의 주제로 널리 애용되던 것이 1723년 이태리인 메이소네르(Meissoner)의해 프랑스에서 사용하게 되었다[7)].

18세기 프랑스 사회는 수입의존 정책을 지양하고 유럽 각국에서 숙련공을 데려와 프랑스 노동자들에게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등 자국내의 산업발달에 노력하였다. 특권층인 귀족과 성직자는 대부분의 국가 재원을 소유하고 사치스런 생활과 향락에 몰두하였으므로 그들의 호사스런 생활에 적합한 의상과 실내장식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힘입어 직물생산이 활발하게 되었다.

18세기의 계몽사상은 루이 14세의 말기의 군주를 중심으로 한 틀에 박힌 궁정문화의 형식성에서 벗어났다. 당시의 문인・학자・사상가들은 부유층 부인들과 살롱에 모여 토론을 즐김으로써 살롱문화가 발달했다. 그들은 인간이성을 확신하고, 과학지식의 발달

과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믿고 자유롭고 친숙한 분위기를 형성하며 모여들었다.

로코코의 예술양식은 루이 14세와 루이 15세의 중간기에 등장하여 루이 15세 고조되어 루이 16세까지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사교계의 예술, 귀족예술로 불리우며 살롱 문화를 바탕으로 유연성, 경쾌성, 섬세성 등의 정취를 중심으로 화려하고 정겨움이 넘치는 유희와 쾌락에 몰두하여 사치스럽고 우아하게 표출되었다. 당시 궁정문화와 귀족문화가 해체되어 가면서 이상적이고 화려하며 장중함은 사라지고, 자유로운 형식과 리드미컬한 곡선으로 구성된 밝고 화려하며 세련된 귀족취미의 문화를 대변하는 양식으로 나타났다. 1723년에 즉위한 루이 15세의 예술에 대한 지대한 관심도 큰 역할을 하였다. 그는 실내장식과 복식용의 견직물, 금은 제품 등의 디자인이나 모형을 그 자신이 직접 점검하거나 수정한 다음에 제작을 허락할 정도였고[8], 실내를 꾸미는데 많은 관심을 집중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실내장식을 위한 직물 발달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1745년 이래 퐁파도르(Pompadour)부인과 마리 앙뜨와네뜨(Marie Anainette)에 이르러 더욱 고조되어, 그들의 휘황찬란한 무늬의 옷감에 의한 복식의 착용은 로코코 문화의 영향과 더불어 호사스러운 직물이 생산되고 수출하게 되는 등 큰 유행을 만들었다. 특히 직물에 있어서 플로럴 패턴은 루이 15세 시기 상징의 하나로 생각 할 정도로 중요 모티프로 사용되었다.

2. 직물과 플로럴 패턴

1) 직물의 특성

로코코시기는 새로운 산업기술로 완전 기계화된 방적기와 직조기의 발명으로 인해 우수한 직물을 빠른 속도로 직조해 낼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직물산업은 프랑스의 별장과 교외주택 건축이 붐을 이루면서 실내장식에서 유행되어, 벽면에 쓰는 판자양식 대신에 직물의 사용이 늘어났고, 직물에는 운문이나 파문을 장식하거나 우아하고 다양한 패턴이 발달하였다.

직물의 조직으로는 각양각색의 문직, 능직, 백호직, 선직, 파문직 등이 있었고, 이것들은 천개 또는 기타 장식용으로 사용되었다. 또 침염(浸染)이 있었는데 전원풍경을 붉은 색, 남색, 청색의 3가지색의 반복으로 표현한 것이 유명하였다. 커튼이나 천개의 색도 온화하고 엷은 중간색, 즉 장미색, 터키 옥색, 담청색, 겨자색, 엷은 청색 등이 유행하였다[9]. 이 무렵의 리용 견직물들은 기술적인 면에서의 완벽성이나 디자인 면에서의 우아함, 실용적 가치 때문에 외국에서도 높이 평가되어 그 수요가 증가되고 여러 지방으로 수출되었다. 이를테면 로코코시기의 직물산업은 직물을 필요로 했던 수요층의 욕구와 이에 부응한 디자이너들의 훌륭한 창작력과 그리고 국가적 뒷받침에 힘입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당시 화가들은 직물 생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그들이 직접 참여하여 밑그림을 그리고, 직공들이 직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곳 저곳을 옮겨다니며 디자인하였으며 좋은 디자인은 복제되기도 하였다[10]. 따라서 직물공장에서는 단순한 직물이 아니라 예술작품으로서의 직물을 생산하게 되었으며, 이 때 패턴을 담당했던 화가나 텍스타일 디자이너들은 당시의 예술양식을 반영한 직물 디자인에 플로럴 패턴을 주요 소재로 삼았다.

당시의 대표적인 디자이너인 장 레벨(Jean Reve)은 로코코의 감각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데 1730년에서 1740년경에는 평면적인 그림에서 음영을 살린 섬세화로 부드러운 색채와 풍요로운 농염의 표현으로 회화적인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베르드리(Hiberderie)는 직물장식의 패턴으로서 자연스러운 플로럴 패턴과 색조를 선호하는 디자이너였고, 라살르(Lasalle)는 리용에서 가장 위대한 견직물 예술가이면서 주로 호화로운 꽃다발과 공작의 깃을 표현하는 디자이너였다. 장 필르망(Jean Pillement)은 회오리바람의 플로럴 패턴이나 중국풍의 패턴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의 디자인은 유럽의 다른 디자이너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2) 플로럴 패턴의 형성 배경

로코코시기에 들어서는 꽃의 남용시기라고 할 만큼 플로럴 패턴이 발달하고 모양이나 표현방법 등이

완숙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꽃은 17, 18세기를 거쳐 최고의 패턴 모티프로서, 미의식이 농축되어 있는 주제라 하겠다. 여러 종류의 패턴 주제 가운데 플로럴 패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배경은 다양하다. 계몽주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자연과의 일치, 살롱을 중심으로 한 여성적인 취향, 과학기술의 발달은 식물연구에 대한 관심과 식물도감의 간행, 중세의 종교적인 생활상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면서 꽃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꽃의 선호는 정원의 발달로 이어졌고, 동방문화, 이국문화의 유입 등은 플로럴 패턴이 유행하게 된 배경으로 지적 될 수 있다.

먼저 플로럴 패턴의 애용은 당시 계몽주의자들의 영향이 발견된다. 그들은 자연을 숭상하는 자연주의 사상에 심취하였고 이를테면 당시의 예술가들은 자연의 감정을 아름다움의 상징인 꽃으로 표현하여 패턴을 새겨 넣는 방법 등으로 활발한 디자인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소유하려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자연과의 일치를 추구했던 생활 감정을 감지할 수 있다.

로코코 예술의 특징 중의 하나가 여성적인 취향인데, 플로럴 패턴이 주는 곡선적인 부드러움, 꽃 자체가 지닌 아름다운 조화미와 색채의 미묘한 느낌에서 여성적인 속성이 발견된다. 로코코 예술 양식이 여성적 분위기인 만큼 플로럴 패턴은 여성들의 의상에 매우 인기가 있었고, 여성중심의 살롱 문화의 배경과 더불어 환상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상징적인 요소로도 사용되었다.

그리고 중세는 신앙의 엄숙함과 왕권의 절대권위 아래에서 패턴의 자유로운 디자인은 불가능하였고, 왕실의 기호에 맞는 제한된 디자인만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의 실패는 교회의 절대적 권위를 무너뜨렸고 사람들은 점차 중세적 기독교 관념에서 벗어나고, 좀 더 인간적인 즐거움을 찾으려 했다. 즉 이제까지의 종교적인 주제는 퇴색되어갔고, 인간의 감정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예술의 목적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플로럴 패턴이 지닌 생명력 있는 아름다움이 더욱 부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당대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생활상과 더불어 종교적인 신비로운 감정을 가미하여 정신적인 만족을 표현할 수 있었다.

플로럴 패턴이 유행된 가장 큰 배경 중의 하나는 동방문화의 교류도 들 수 있다. 유럽에서는 십자군의 원정으로 동방과의 교역이 활발해 지기 시작하여 이슬람풍과 동양풍과의 접촉을 갖게 되는데[11], 동방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꽃을 수입하게 되었다. 동서문화교류에서 중국과 일본에서 백합과 국화가 들어왔으며 중국, 일본의 동백이 유럽에 전래된 것도 17세기 후반경인 이 때이다[12]. 이국문화와의 교류는 인도에서 전래해 온 이질적 꽃으로 디자인한 인도풍의 민속적 플로럴 패턴을 그대로 모방한데서 알 수 있다. 환상적인 인도풍의 패턴은 텍스타일 디자인에서 빈번하게 목격되고, 동방으로부터 수입된 귀중한 실크는 대부분 예외 없이 유럽귀족들의 의상으로 제작되어 유행하게 된다. 그 당시 꽃무늬가 얼마나 성행했는가는 루이 15세가 트리아농(Trianon)의 온실에 꽃을 심고 그의 연인 퐁파두르 부인이 한 겨울에도 벨르뷔(Bellevue)성의 화단에 꽃을 만발하게 해 두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18세기 정원의 발달은 자연과학의 발달도 한 몫을 하였는데, 그 예로 식물연구에서는 꽃의 다양한 품종개량과 꽃 재배가 확산되었고 나아가 식물도감도 간행하게 되었다. 식물도감의 간행은 당시의 텍스타일 디자이너들이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꽃들을 참고자료로 활용하기에 용이하였다.

Ⅲ. 로코코시기 플로럴 패턴의 조형성

로코코시기의 초기(1713~1725)는 루이 15세의 섭정기인 레장스 시대, 즉 바로크와 로코코의 양식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시기까지, 중기(1726~1773)는 루이 15세의 영향아래 로코코 양식이 직물의 패턴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기, 고대풍의 간소한 아름다움이 로코코 양식에 융화되기 시작한 루이 16세 시대를 후기(1774~1792)로 하여 3시기로 구분하였다.

〈표 1〉 로코코시기 플로럴 패턴의 구성양식

단순구성					복합구성					기타
구성요소	꽃	꽃과 잎	꽃과잎·과일	꽃다발	꽃과 레이스·리본	꽃 과 꽃병	꽃과 스트라이프	꽃 과 풍경	꽃과 새·악기	
(%)	12.4	31.8	6.4	5.2	9.6	6.8	13.8	10.6	3.2	0.2

1. 조형특성

1) 구성양식 및 요소

로코코시기의 플로럴 패턴은 수집한 자료 502점 중에서 단순구성과 다른 요소들을 첨가한 복합구성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 단순구성이 55.8%이고, 복합구성은 44.0%로 나타났다. 복합구성에서 부가적인 요소들도 다양한데 레이스, 리본, 꽃병, 스트라이프, 풍경, 새, 악기 등이 사용됨을 볼 수 있고 출현율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로코코시기는 "꽃의 세기"로 불리울 만큼 꽃을 애용했으며, 다양한 종류의 꽃이 등장하고 있다. 꽃의 종류는 작약, 카네이션, 동백꽃, 금잔화, 아네모네, 장미 등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메꽃, 아이리스, 백합, 국화, 맨드라미, 방울꽃, 엉겅퀴 등도 발견된다. 열매는 석류, 포도 등도 보이지만 천도복숭아, 이름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열대과일과 인도 과일 등이 자주 출현한다.

플로럴 패턴은 크게 꽃과 리본·모피가 있는 형, 레이스 형, 꽃과 스트라이프 형, 다발 형, 풍경 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꽃과 리본, 모피가 있는 형 : 플로럴 패턴에 리본이나 모피를 첨가한 형은 경쾌하게 약동하는 곡선의 활용에서 아름다움을 도출 할 수 있고, 좌우균형을 파괴한 자유로운 형식에서 화려함이 감지된다. 여성적이면서도 화려한 리본이나 사치스러운 모피 등의 부가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형태를 부각시킴으로서 장식적 기능을 담당하며 조형적 특징이 발견된다.

〈그림 1〉[13]은 자그마한 꽃과 가지는 사실성을 가지면서 너울처럼 디자인하였는데 넓은 여백에서는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으며 가볍고 투명한 레이스는 방향성을 가지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듯한 착각을 갖게 한다. 또한 작고 앙증스러운 꽃의 형태에서 귀여운 여성미를 듬뿍 담고 있는 명랑한 분위기를 부각하는 일면도 있는데 테이프, 너울, 구슬 등도 함께 사용하여 여성적인 정취가 느껴지며 섬세한 로코코의 취향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림 2〉[14]의 리본이 가지는 선은 규칙적이지 않고, S자 커브를 그리며 자유분방함을 창출한다. 선이 바람에 날아가는 가벼운 너울 조각처럼 하늘거리고, 탐스런 꽃송이들 사이에서 춤추듯 처리한데서 작위적이고 의도적인 곡선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

〈그림 1〉 Brocade,
18C중기, 44×52.5(㎝)

〈그림 2〉 Lampas,
18C, 75×55(㎝)

의 곡선은 쾌락적이고 무위도식을 선호하던 그들의 미적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레이스 형 : 레이스는 복식에서 가장 중요한 액세서리로 당시 남녀 모두가 즐겨 착용하였다[15]. 꽃과 함께 레이스 모양을 그대로 첨가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꽃과 잎을 레이스와 같은 효과로 표현했는데, 일명 레이스 패턴이라고 한다. 그 근거는 1720년대의 회화작품에서 레이스 패턴의 의상이나 레이스로 장식된 복식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1750년에서 60년대에 대중적인 인기를 보였다[16].

〈그림 3〉[17]은 크고 작은 열매와 다양한 잎사귀를 마치 꽃다발 형태로 디자인한 레이스 패턴은 섬세한 잎사귀들로 C자 모티프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똑바로 혹은 거꾸로 써 놓은 듯한 C자, 연속된 C자 , 마주보는 C자 등의 다양한 형태이며 하나의 무늬를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놓은 모양의 무늬를 서로 번갈아 가며 연속하고 있다. 규칙적이지만 섬세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레이스 효과는 고상하고 수려한 미적 특징이 발견된다.

③ 꽃과 스트라이프 형 : 당시기에 크게 두드러지는 특징 중의 하나는 스트라이프의 출현인데 1732년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1749년까지 유행했다[18].지금까지 환상적이고 유쾌한 멋을 즐기던 당시기인들이 중기에 들어서면서 직선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텍스타일 디자인의 패턴 형태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4〉[19]는 장미로 짐작되는 부케가 주조를 이루어 장식 줄 같은 형태의 곡선을 만들어 연결시켜 강한 느낌의 스트라이프 위에 아름답고 풍요하게 놓여있다. 세로로 줄을 이루고 있는 모양은 간결하면서도 감각적인 기풍을 표현한 것으로, 만연해 있던 쾌락과 방종에서 오는 하나의 반동이라 할 수 있다.

④ 다발형 : 꽃의 모양이나 크기는 실제와 같고, 크고 작은 꽃들이 한데 묶여 마치 정원의 꽃들이 만발한 듯한 느낌을 준다. 화환모양, 꽃바구니에 가득 담긴 꽃다발 모양, 꽃병에 꽂혀 있거나, 꽃을 포함한 풍경을 묘사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중기에 들어서면서 부케와 레이스, 리본으로 감싸거나 깃털로 장식된 화관을 첨가한 패턴도 많아졌다[20].

〈그림 5〉[21]는 루이 15세 시기의 로브(robe)이다. 늘어진 야자수 잎과 여러가지 종류의 꽃과 풍경을 주제로 하여 풍성한 형태를 보인다. 짙은 적갈색의 바탕직물에 선명한 다채색 패턴의 조화로 강한 대비를 보이지만 바탕직물의 색조가 짙은 관계로 비교적 침착함을 나타낸다. 당시 많은 활약을 한 텍스타일 디자이너 장 리벨(Jean Revel)이 디자인한 것으로 당대의 미술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던 패턴이다[22].

⑤ 풍경형 : 풍경을 모티프로 한 것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는 당시기의 자연미에 대한 취향을 반영한

〈그림 3〉 Broche,
1720-50년,167×51(㎝)

〈그림 4〉 Brocaded,
18C중기, 55.9×52.1(㎝)

〈그림 5〉 Satin brocade,
1740-1750년,141×40(㎝)

〈그림 6〉 Lampas, 18C
중기, 39×31.5(㎝)

것으로 정원을 선호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동양, 특히 중국의 영향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하겠다[23]. 당시기인들이 동경하던 중국풍의 패턴을 일컬어 시느와즈리(Chinoiserie)이라고 하며 이 양식은 플로럴 패턴과 더불어 중국인들의 생활모습 등이 주된 모티프로 애용하며 섬세하고 아름답게 이국문화에 대한 환상성을 표출했다.

〈그림 6〉[24]은 중국인의 생활상에 꽃을 첨가하여 주된 모티프로 애용한 사실이 발견되는 디자인인데 중국아이들로 짐작되는 세 사람이 로카이유 언덕에 앉아있다. 깔개처럼 사용한 아칸서스의 잎은 당시의 주도적인 분위기였던 경쾌함과 로코코 형식의 섬세한 아름다움과도 조화를 이룬다.

2. 플로럴 패턴의 유형과 특성

1) 표현방식에 의한 분류

로코코시기 플로럴 패턴의 표현방식은 양식적, 사실적, 추상적으로 분류하였다〈표 2〉.

① 양식적 표현

양식적인 표현은 텍스타일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패턴을 가장 용이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므로 여러 표현 기법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며 출현율이 44.8%이다. 잎사귀가 주류를 이루는 패턴에서 그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아칸더스 잎, 종려나무 잎,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잎, 승리와 성공을 의미하는 상징이 강한 월계수, 이름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상의 잎사귀 등에서 표현방식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 7〉[25]은 단순화시킨 꽃모양과 잎사귀들을 빽빽하게 디자인하여 바닥이 가끔씩 내다보일 정도로 복잡하면서도 풍요롭게 처리되어 있다. 정밀하고 세밀하며 색상과 표면이 여성적인 레이스에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도 가벼운 감촉을 전달한다.

② 사실적 표현

사실적 표현은 생동감을 주어 자연의 아름다운 자태를 충실히 표현하고 강약의 선, 색의 농염, 명암 특히 양감이나 입체감을 강조하며, 출현율은 36.4%로 빈번히 등장하였다. 특징은 경쾌한 필치와 풍요한 색채에 의한 화려한 구도가 주류를 이루고, 1743년에는 식물사생주의[26]가 나타나 식물 그대로의 모습에 충실하려는 화법이 선호됨으로서 그 영향이 발견된

〈표 2〉 로코코시기 플로럴 패턴의 표현방식 빈도율

표현방식	양식적	사실적	추상적
출현율(%)	44.8	36.4	18.8

다. 당시 새로운 종류의 식물이 파리 식물원에 소개되어 프랑스 내에서 활동하는 네덜란드의 꽃의 화가들은 사실적인 꽃무늬를 표현하는 것이 대유행이었으며 또한 로코코 말기의 자연주의적인 성향은 고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표현형식이 구상적 형태를 취했다.

〈그림 8〉[27]은 루이15세 시기의 것으로 의상용 직물인데 패턴의 표현방법이나 구성 등이 당시기의 전형적인 표본 중의 하나이다[28]. 카네이션은 로코코시기 대부분의 직물에서 발견될 정도로 빈번히 등장하며 주요 모티브이다. 장미, 국화, 튜울립과 함께 세계 4대 절화(折花)로 취급되며 오늘날 까지 애용되는 텍스타일 디자인의 주요 주제이다. 카네이션의 매우 정교하고 섬세한 표현은 꽃송이들이 생명에 차 있는 것처럼 묘사되었고 가지의 곡선은 상당히 크게 휘어 원을 그리듯 하고 있는데 팽팽한 탄력을 함유하여 꽃의 생성감을 강조한다. 여기에 사실감을 존중한 색의 조화도 그 특성을 두드러지게 하는데 강렬하고 장중한 색조보다는 파스텔 색조의 밝은 톤을 사용하여 우아하고 부드럽게 나타내어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존중했다.

③ 추상적 표현

추상적 표현의 출현율은 18.8 %인데, 바로크 플로럴 패턴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로코코시기의 자연사생주의와 낭만주의 영향에서 사실풍을 중시함으로서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로코코시기의 추상적 표현의 특성은 동방문화에 대한 동경에서 현실적인 감각과 몽상적인 요소가 가미하여 환상적 미적 요구가 작용된다. 바로크시기의 추상적 표현은 단지 단순화되는 과정에서 왜곡되고 변형되었다면 로코코시기에는 무언가를 상상하고, 공상하는 듯이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환상적, 공상적 미적 표현을 추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들면 동방의 문화의 유입 즉 중국풍의 꽃 모양에서 근원을 발견 할 수도 있고, 실제 이름을 알 수 있는 꽃보다는 공상적인 꽃 모양을 주로 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림 9〉[29]는 1735년에서 40년경의 로코코시기의 것으로 짐작되는데 꽃의 종류는 작약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활짝 피어 있는 듯한 꽃은 추상적인 표현이다. 꽃의 암술과 수술인 듯한 것이 왜곡되어 솟아오르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잎사귀도 마치 구술이 달려 잇는 듯 변형되어 있다. 충실한 묘사에 비해 섬세하고 화려하다기 보다는 아무런 감정을 가질 수 없는 차가운 기하학적인 도형과도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2) 시문방법

시문방법에 따라서도 상이한 미적 효과가 창출될 수 있으므로 로코코시기 플로럴 패턴을 직물에 표현한 방법으로 직조, 자수, 날염의 방법으로 나눠서 그 특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7〉 Satin, 1726-27년, 63.5×28(㎝)

〈그림 8〉 Brocade, 18C중기,77×27(㎝)

〈그림 9〉 Taffetas, 1735-40년,49.5×48(㎝)

① 직조

직조에 의한 플로럴 패턴은 섬세하고 모티프의 크기도 작아진다. 따라서 직조의 기술은 더욱 사실적이면서 섬세하고 화려한 표현을 하는데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달하였다. 당시의 직조업은 실내장식용뿐 아니라 우아하고 섬세한 아름다움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의류용 직물산업에도 어느 시기 못지 않게 특별한 전성기를 맞이하게 하였다.

직조 방법을 사용한 패턴이 있는 직물은 다마스크, 벨벳, 새틴, 브로케이드 등의 견직물이 주류를 이룬다. 직조에 의한 조형적 특성은 다양한 색채와 금사·은사 사용의 사용으로 호화롭고 화려함을 보인다. 휘황찬란한 옷 생활을 즐겼던 귀족들의 요구에 따라 견에 금, 은사를 섞어서 제직한 이 직물은 매우 화려하며 고급스러운 특징을 보였고 생산량도 극에 달하였다. 금, 은사의 남용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자 여러 차례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텍스타일 디자인에 금·은사를 사용하여 그 선호도를 가히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최고급 직물들은 당시의 생활상을 반영하듯 매우 화려하고 환상적이었다.

② 자수

자수는 식물학의 발달과 정원을 좋아했던 그들의 취향과 더불어 플로럴을 주제로 하여 아름다운 패턴을 형성했다. 직조나 프린트 기법과는 달리 다채색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다양한 패턴을 자유분방하게 나타낼 수 있는 특징이 있으므로, 호사스럽고 화려한 의상 취향은 자수의 발달을 극도에 달하게 했다. 그 예가 베르사유의 침실 휘장인데 자수기법의 우월성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직물의 패턴발달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보이게 하는 사례이다. 자수의 아름다움과 미적 표현은 당시 실내장식과 가구용을 위한 것으로도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려한 자수의 복식을 선호하였으므로 개인 전문 자수사를 고용할 정도였다.

〈그림 10〉[30]은 작고 예쁜 꽃과 잎을 줄기에 연결하여 재킷의 햄라인을 따라 사치스러운 수를 놓았고 중앙에 단추를 여러 개 달았고, 당시 귀족들의 남성복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인데 베스트와 재킷 모두에 다 같은 패턴을 화려하게 자수하여 장식하는 것이다. 다양한 색으로 표현된 현란함은 영롱한 색조와 함께 화려하며 찬란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이들의 조화는 고급스러우면서 은은한 아름다운 미적 표현을 구현한다.

③ 날염

17세기 후반기부터 기술적·화학적인 발달은 날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날염공의 수가 급증하고, 18세기 전반기에는 꼭두서니 염료를 사용하게 되었다. 당시 날염포의 패턴은 견직물의 플로럴 패턴을 모방하였는데 "china blue"의 날염은 견직물의 양식에 상당히 가까운 예를 보여준다[31]. 이 시기의 날염포는 친즈(Chintz)[32]라고 불리는데 저택을 장식하는

〈그림 10〉 Embroidered(부분)
18C중기~후기

〈그림 11〉 Taffetas peint, 1760~70년,
35.5×75(㎝)

데 실내장식, 침대의 천개, 바닥의 카펫으로까지 사용됨을 볼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의 의상에도 겉감에 친즈를 사용하고, 남성복은 주로 실내복으로 친즈를 이용하였으며 이때 선명한 색채를 애호하였다.

〈그림 11〉[33]은 천 위에 염색으로 직접 그린 패턴은 친즈라기 보다는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하다. 마치 동양화의 근경과 원경의 구도로 구성되었고, 왼쪽 아래에 위치한 새의 형태나 그 위쪽 계단 위에 놓여진 꽃바구니의 위치나 계단의 비현실적 묘사가 특이하다. 과일과 열매들로 풍성하게 구성된 전원에서 한 중국인이 유유히 흐르는 듯 날리고 있는 너울을 잡고 있어 마치 하늘과 땅의 연결을 암시하는 듯하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상상의 세계를 연상시키게 하는 풍경이다.

지금까지 문헌과 도판 자료를 통하여 로코코시기의 예술양식과 플로럴 패턴의 형식적 특징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로코코 양식의 특징적 결과로서 나타난 플로럴 패턴의 조형미를 도출하였다〈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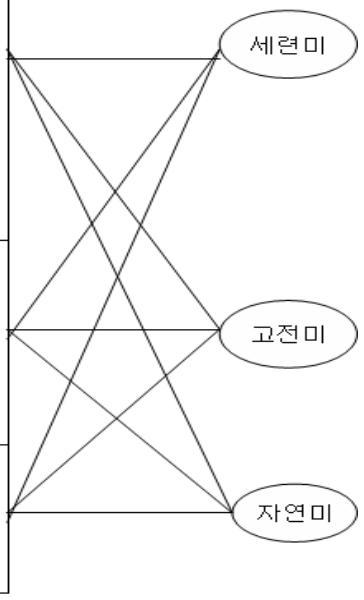
2. 조형미

1) 귀족취향의 세련미

플로럴 패턴은 앙증맞고 작은 모티프와 유연한 선을 즐기며 화려하고 정겨움이 넘치는 세련된 느낌으로 나타난다. 비교적 작은 모티프와 흘러내릴 듯 묶여있는 형태를 구성하였고, 조화와 균형 또는 규칙적인 것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보다는 유희적이고 자유분방한 매력을 지향하는 선의 추구로부터 출현하였다. 꽃다발이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듯 유연함을 보이며, 방향성 없이 자유분방한 곡선의 기묘한 어울림으로 어우러져 직물 전체에 흩날려 있는데서 가벼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특성은 로코코시기의 초기에 나타난 현상으로 당시 사치스런 생활과 향락에 몰두한 귀족들이 천박한 쾌락을

〈표 3〉 로코코시기 플로럴 패턴의 조형적 분석

구분	조형적 특성	조형미
구성양식 및 종류	.백합, 카네이션, 메꽃, 작약 .화환, 공작, 바구니, 리본, 지문 .작은 모티브, 여백.의 사용, 사실풍 .S자, U자, 유연한 곡선, 불규칙, 자유분방한 배치	고상, 정결, 여성성, 자유분장함, 섬세함, 경쾌함, 쾌락적, 생성감, 이국적, 공상적, 가벼움, 자연스러움, 고급스러움, 가냘픈, 감각적, 환상성, 유연성, 여유로움
표현방식	평면적, 레이스, 강약의 선 섬세하고 생생한 묘사, 조화, 비례, 불균형, 입체감, 명암, 부조화, 도식적, 기하학, 상상의 꽃	장식적, 품위성, 세련미, 신성, 충실성, 생성감, 화려한, 자연성, 우아, 유연함, 공상적, 환상적, 초현실적
시문방법	.금란, 은란이 두드러짐, .캔버스자수, 친즈, 회화풍, .이국적, 환상적	자연성, 장식성, 쾌락적, 감각적, 생성감, 사치성, 호사성



즐기고 자유분방하고 무절제하며 파격적인 것을 선호한 세련된 귀족취향의 문화와 상류사회의 생활상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 우아한 고전미

우아는 대상적 특성을 유연하고 자유로운 파상적 곡선운동을 보고 움직이지 않은 대상일지라도 선적 가상으로 우아한 동태를 느끼게 한다고 했다[34]. 유기적 곡선의 화려한 플로럴 패턴의 가미는 고전미를 지니면서 우아함도 연출한다. 물결을 이루는 듯한 패턴의 구성과 모티프의 크기가 작고 소담한 플로럴 형태에서 부드럽고 여성적인 감각, 즉 정교하고 섬세하고 사실적인 표현에서 목격된다. 당시기 인들에게 애용되던 리본, 모피 등을 활용한 패턴은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지닌 유동성 있는 우아함을 창출한 좋은 예이다. 플로럴 패턴에도 예술양식과 맥을 같이 하여 굽이치는 곡선과 소용돌이 대신, 품위 있는 직선을 좋아하게 되고 자유분방한 움직임에서 어떤 일정한 틀에 들어가려는 징조를 보이기 시작하였다[35]. 이것은 로코코 양식에 대한 반동으로 고대 예술의 동경과 이지적이며 단정한 형태의 고전미를 추구하는 현상으로 신고전주의 양식이 융합되었다. 즉 로코코 중기에 들어서는 사치의 극에 달한 로코코 예술양식에서 주류를 이루던 곡선이 직선으로 변화 되어, 패턴의 형태는 바탕에 직선의 스트라이프가 출현되고 그 위에 하늘거리는 꽃 줄 장식이 드리워지는데, 여지껏 가식적이고 반 인공적인 미를 추구한 것에서 벗어난 구성을 보인다. 작고 유연한 모티프를 사용한 곡선의 꽃, 리본과 꽃 줄 장식에서 보여주는 유기적인 곡선은 생기에 넘치고 경쾌하며 부드러움과 자유로움으로 우아함도 느끼게 한다.

3) 낭만적인 자연미

로코코 양식과 더불어 사물의 객관적 묘사는 근대 자연주의가 추구하던 정확성과 자연스러움을 확보한다. 상상력에 의존했던 낭만주의에 반하여, 실재하는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름다운 전원과 농민의 생활을 화폭에 담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이 시기에 장 자끄 루소(Jean Jackques Rousseau, 1772~1778)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주제가 예술분야에 영향을 미쳐 자연주의가 부각된다. 로코코 말기에는 지나친 장식에 싫증이 나 있던 터이고, 부드럽고 환상적인 자연의 형태를 동경했던[36] 조형 의지가 플로럴 패턴에서 주목된다. 그 예로 아름다운 낭만풍의 본질을 발휘하여 궁중생활의 예법이나 강압감에 싫증을 느껴 베르사유 궁전에 스위스의 작은 촌락을 재현시켜 궁정을 떠나 여기에서 생활을 즐겼다. 이것은 고요하고 평온한 목가적인 풍경 속에서 생활하는 모습이라든가 춤을 추고 있는 모습 혹은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의 전원풍경을 주제를 한 텍스타일 디자인에서 발견할 수 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플로럴 패턴의 근원이 발견되는 로코코시기의 직물에 나타난 플로럴 패턴에 대해 유형을 분류하고 표현방식, 시분방법에서 특성을 고찰하고, 조형미를 도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로코코시기 플로럴 패턴의 구성양식과 요소는 다발형, 꽃과 리본 형, 꽃과 스트라이프형, 레이스형, 풍경형 등이 있고 유연한 곡선, 섬세하고 유려한 선, 불규칙적, 자유로운 곡선, 작고 앙증스러운 모티프, 작은 꽃다발, 스트라이프가 출현했으며, 일상생활, 바다, 정원 등을 소재로 한 풍경 등도 패턴으로 하였다. 특징은 S자형의 불규칙적인 곡선으로 나타나며, 자유분방하고 화려함을 표출했는데 실제 크기의 꽃 모양으로 여러 종류의 꽃이 한데 묶여 마치 정원의 꽃들이 만발한 듯한 느낌을 주며 호사스럽고 풍성한 아름다움도 표현했다.

표현방식은 양식적인 표현은 레이스와 같은 효과와 투명하고 가벼운 감촉이 특징이다. 사실적인 표현은 양감이나 입체감을 강조하고 자연의 색을 사용하여 사실성을 존중하였다. 추상적 표현은 무언가를 상상하고, 공상하는 듯이 표현하여 환상적이다.

시문방법에서 자수는 바탕의 여백이 많아져서 편안하고 여유 있는 느낌을 주며 사실성을 강조하여

생성감을 보인다. 날염은 동양의 영향으로 친즈가 발달하여 이국적이고 환상적이다. 비딩이나 레이스도 활용했는데 장식적이고 사치스럽다.

로코코시기 플로럴 패턴의 조형미는 살롱문화를 바탕으로 한, 앙증맞고 작은 모티프와 유연한 선을 선호하여 정겨움이 넘치는 세련된 느낌에서 귀족취향의 세련미가 발견되고, 패턴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데 집중하고 사실성을 존중하는데서 우아한 고전미가 보인다. 부드럽고 환상적인 주제를 애호하면서 자연의 형태를 동경했던 당시대의 조형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낭만적인 자연미가 목격된다.

이상과 같이 고찰한 조형적 특성과 조형미는 오늘날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고전과 현대의 접목이라는 아이디어 발상의 근원으로도 작용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로코코시기 플로럴 패턴의 조형성 고찰을 위해 실물을 접하지 못하고 도판자료의 인쇄물을 이용하였으므로 정확한 모티프의 크기와 색상을 분석·고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후속 연구는 현대인들이 지각하는 로코코시기 플로럴 패턴의 미적 감성에 대한 연구 과제를 남겨둔다.

참고문헌

1) 이경순 (1994). *텍스타일프린트디자인*, 현암사, p. 58.
2) 차임선 (1998). *텍스타일디자인*, 예경, p. 86.
3) 佐野敬彦 (1988). フランスの染織 現代工藝. *裝飾デザイン, 3号*, p. 57.
4) Kax Wilson (1979). *A History of Textiles*, Westview press, pp. 185~186.
5) 이선화.·권영숙 (2002). 바로크시대 직물에 나타난 플로럴 패턴의 텍스타일디자인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 4*(2), pp. 117-127.
6) 이선화·권영숙 (2002). Baroque직물에 나타난 플로럴 패턴의 조형성. *복식, 5*(7), pp. 1-11.
7) 장문호 (1977). *서양미술사*. 형설출판사, p. 169.
8) 宮川淳譯 (1964). *18世紀 フランヌ 織物*. 東京: 美術出版社, p. 243.
9) 北村哲郎譯 (1976). *リヨン織物美術館 第Ⅲ卷*. 東京: 學習研究士, p. 256.
10) Kax Wilson. *앞의 책*, pp. 185-186.
11) 장문호. *앞의 책*, p. 99.
12) 佐野敬彦. *앞의 책*, p. 61.
13) 北村哲郎譯 第Ⅲ卷. *앞의 책*, p. 101.
14) Jacques Anquetil (1995). *Silk*. Flammarion Paris. p. 71.
15) *Ibid.*, p. 110.
16) British Museum (1980). *British Textile Design, 1*, Tokyo: Gakken co., p. 239.
17) 北村哲郎譯 第Ⅲ卷. *앞의 책*, p. 239.
18) British Museum vol.1, *op. cit.*, p. 119.
19) Marinis, F. (1993). *VELVET*. Milan: Idea Books, p. 58.
20) Jacques Anquetil. *op. cit.*, p. 92.
21) Musees et Monuments de France (1990). *The Textile Museum Lyon*, p. 68.
22) Musee des Tissus de Lyon (1998). *Lyonnaises D'Art et* D'Histoire Lyon, p. 180.
23) 조규화 (1989). *복식미학*. 수학사, p. 167.
24) 北村哲郎譯 第Ⅲ卷. *앞의 책*, p. 91.
25) *위의 책*, p. 102.
26) British Museum vol.1, *op. cit.*, p. 256.
27) 北村哲郎譯 第Ⅲ卷. *앞의 책*, p. 166.
28) *위의 책*, p. 263.
29) *위의 책*, p. 229.
30) British Museum vol.2, *앞의 책*, p. 99.
31) *위의 책*, p. 244.
32) Chintz : 어원은 다채색이란 의미의 힌두어'chinto'에서 유래하며 이는 실내장식과 의복을 위해 사용되고, 목판이나 기계날염을 이용한 5도 이상의 다양한 색상의 목면지(木棉紙)를 말함.
33) Anne Kraatz (1995). *VELOUR*. Paris: Adam Biro. p. 78.
34) Steele (1988). *V, Paris Fash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 201.
35) 정흥숙 (1998). *서양복식문화사*. 경춘사, p. 241.
36) British Museum vol.2, *op. cit.*, p. 289.